

조선족유치원교사양성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박근혜¹⁾

요약

조선족영유아교육은 비단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경내 소수민족으로서의 민족공동체의 발전과 민족정체성의 유지차원에서 그 중요성과 당위성이 부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족유치원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의 중임을 맡을 유치원예비교사양성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1980년대 초에 설립된 연변제1사범학교(지금의 연변대학 사범분원)의 유아사범전업은 많은 유치원교사를 양성하여 조선족유아교육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국력신장에 따른 민중들의 교육수요의 증대와 고중교육의 보급 및 대학교육의 대중화에 따른 교육기회의 확대 등 원인으로 조선족유아사범교육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주로는 '3+2'의 사범교육체제상의 문제점, 지방생의 고갈, 교과과정의 불합리성 등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유아교육, 유아사범교육에 대한 인식전환, 유아사범교육전문성의 제고, 유아사범교육체제개혁, 교과과정개혁 등의 정책마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조선족 유아사범교육체제, 조선족 유치원교사

I. 문제의 제기

유아기는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많은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로, 유아의 두뇌 발달과 자아형성, 자기조절과 도덕성의 기초형성,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최적의 시기이다. 이러한 유아발달의 과정에는 적절한 때를 놓치면 결핍이 누적되어 돌이킬 수 없다는 발달의 기초성·적기성·누적성·불가역성이라는 요소가 작용한다.

1)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즉 인간발달 주기에서 유아기가 차지하는 영향이 지대하며 이 시기에 질적으로 좋지 못한 양육이나 교육환경에 노출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초기경험의 중요성이 중요시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또한 기혼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참여도의 상승과 출산율저하, 소가구화 등의 가조구조변화로 영유아교육의 필요성은 단순히 보육의 차원을 벗어나 교육의 원초적인 출발선에서부터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영유아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일선에 있는 유치원교사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경내에서의 조선족유아교육은 상술한 유아교육의 보편성위에 또 자체의 특수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개혁개방이래 중국경내 조선족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조선족사회의 제반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조선족사회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서 결정적인 몫을 담당하여오던 조선족 민족교육이 받는 충격이 심각한바, 그 중에서도 사회의 관심을 끄는 문제가 바로 민족교육의 위축이다. 인구유동 및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의 부족, 농촌교육의 쇠퇴, 민족문화교육의 점진적인 약화, 한족학교에로의 유입 등등과 같은 곤경을 타개하고자 각지 조선족학교들과 사회각계지인들은 민족교육발전의 차원에서 유치원단계의 교육을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소학교에서의 학전반(學前班)단계교육을 진일보 유치원교육으로 확대하여 3-7세의 학령전 어린이를 최대한 유치하는 방법으로 조선족학교의 규모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박금해, 2008). 조선족이 산거하여 있는 연변외의 동북3성의 경우, 유치원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바, 할빈·심양·장춘·목단강 등 도시의 조선족소학교들에서는 소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는 방법으로 조선족영유아들의 한족유치원으로 유입을 막고 조선족소학교의 학생정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미 그 실효성이 반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조선족유치원교사의 질은 비단 유아개체의 발달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족기초교육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민족공동체발전과 민족정체성유지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상술한 유아교육의 중요성 및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유아교육의 실패는 썩 낙관적이 되지 못한다. 학령전 단계의 교육은 의무교육단계에 속하지 않기에 국가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의 난립, 시설의 미비, 교사의 전문성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전반 유아교육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교사들의 전문성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의 근원은 예비교사의 양성체제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좌지우지하는 유치원교사 양성의 실태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을 나름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조선족유치원교사양성기관 및 양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중국에서의 유치원교사양성의 역사는 20세기초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체계적이고 규범화된 유치원교사양성은 신중국이 건립되어서부터라 할 수 있다. 1951년에 반포한 신학제에는 “유치원교사(師資)를 배양하는 사범학교를 유아사범학교라고 칭하며 사범학교와 초급사범학교에서는 모두 유아사범과를 부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정무원, 1951). 이것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립유아사범학교를 정식학제에 편입한 사례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경제체제의 전환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비롯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에서는 독립적인 유아사범학교를 설립하거나 중등사범학교에 유아사범교육전업을 부설하여 본격적으로 중등교육단계의 유아사범교육을 부추겼으며 이를 바탕으로 90년대 말에 이르러 사범대학과 일부 종합대학들에서 학전교육전업을 설치함으로써 유아사범교육체제가 진일보 완벽화 되었고 유치원교사양성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경내 일개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유치원 교사직업은 20세기 80년대 전 까지만 하여도 거의 경험화·자율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가 80년대 초 중국의 전반 교육이 정상화에도 접어들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여 유치원교사양성도 일정해 오르게 되었다. 일부 직업중학교에서 비정기적으로 유아사범반을 설치하여 유치원교사양성을 추진하다가 1982년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는 연변제1조선족중등사범학교에서 처음으로 3년제 유아사범반 42명의 학생을 모집하면서부터 조선족유치원교사양성도 본격적으로 전문화에도 과도하기 시작하였다.²⁾ 1982년부터 시작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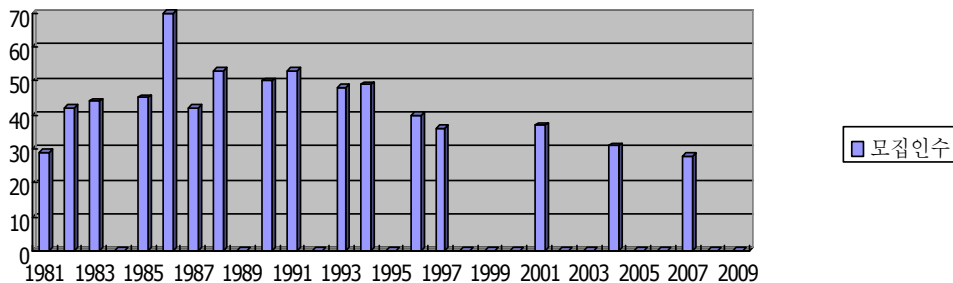
2) 중국의 중고등학교 명칭은, 초등학교를 소학교로, 중학교를 초급중학교(초중)로, 고등학교를 고급중학(고중)교라고 부르며 학제는 6-3-3학제이다. 연변제일사범학교 유아사범전업의 모집대상은 초급중학교를 마친, 즉 6-3단계를 마친 학생들이며 학제는 3년이였다. 1999년 연변제일사범학교가 대학전문학교로 승격하고 교명을 연변대학 사범분원으로 개칭한 다음 유아사범전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연변제1사범학교에서는 거의 해마다 유아사범전업학생을 모집하여 유아사범교육의 기틀을 다져놓았다.

90년대 말, 중국의 사회경제발전과 더불어 날로 증대되는 교육의 수요를 만족하고 중국사범교육의 발전추세에 부응하고자 조선족기초교육의 교사배양을 전담하고 있는 연변제1사범학교의 4년제 중등사범교육체제를 5년제 대학전문교육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교명도 연변제1사범학교로부터 연변대학사범분원으로 개칭하였다. 소학교교사교육체제가 바뀜에 따라 유치원교사양성체제도 일련의 변화가 일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로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력차원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3년제 중등사범교육단계의 유아사범교육을 5년제 대학전문학력으로 승격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배양목표에 대하여 “본 전업은 초급중학교졸업생을 모집하며 수업연한은 5년(3+2)으로, 덕·지·체 등 제 방면에서 전면 발전한, 당대 유아교육발전과 개혁의 수요에 적응하는 대학전문학교 학력의 유아교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연변대학 사범분원, 2001).

상기의 목적 하에 2001년 처음으로 5년제 전문대학력의 유아사범전업 37명의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2004년 9월에 두 번째로 되는 5년제 유아사범전업 31명의 학생을 모집하였다.

단위: 명/연도



자료: 연변대학 사범분원 학생모집처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작성

[그림 1] 연변제1사범학교(연변대학사범분원)유아사범전업 연도별 학생모집 수

지난 세기 80년대에 발족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30여년에 가까운 기간에 연변제 1사범학교-연변대학사범분원에서는 도합 669명의 유아교육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수송하였으며 이들이 지금 연변 내 각 현시의 공립유치원교육에서의 중추적 역할

업의 학제는 기존의 3년으로부터 3+2의 5년제로 전환하였다.

을 맡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교육정책의 변화, 및 조선족사회의 특유의 사회변화는 조선족유아사범교육에도 일련의 충격과 영향을 안겨주었는바, 오늘날 조선족유치원교사양성은 미증유의 곤혹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2.교사양성의 문제점

가. 유치원교사양성체제의 문제점

중국에서의 유치원교사양성의 주요한 경로는 크게 전문적인 양성기관과 비정규적인 양성기관 두 가지로 나눈다. 정규적인 양성기관으로는 4년전일제 본과단계의 사범대학의 아동관련학과와 3+2체제의 5년제 사범전문대학 및 3년제 중등사범학교를 들 수 있다. 그중 4년제 사범대학은 전국통일대학입시를 통하여 고졸졸업생을 주로 모집 대상으로 하며 3+2제의 고등사범학교와 3년제의 중등사범학교는 주로 고졸입학시험을 거쳐 초급중학교졸업생을 모집대상으로 한다. 비정규적인 양성기관으로는 각종 직업중학교의 유아교사반 및 각종 단기훈련반 등이다.

조선족유치원교사는 주로 연변대학사범분원의 유아교육전업(3+2)에서 양성되며 이 밖에 각 직업학교에도 유아교육반이 설치되어 있다. 조선족 유치원교사양성체제에서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먼저 양성기관의 난립과 그에 따르는 전문성의 부족을 들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교육체제상 유치원단계의 교육은 의무교육범위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단계의 교육은 그 설립, 교사임용 및 평가·관리·학생모집 등 제 방면에서 상당히 자율화되어 있기에 유치원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낙인 되어 유아교육관련 전문학교를 졸업한 교사들이 설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중소학교의 교육과 달리 유치원단계의 교육은 민간의존도가 상당히 큰바, 대개의 경우, 사립유치원에서는 교사임용 등 면에서 경제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흔히 전문학교를 졸업한 교사보다 일반 직업학교를 졸업하거나 아예 전문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인을 우선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전문교육을 받은 정규적인 사범학교의 졸업생의 입장에서조차 교사로서의 대우와 정년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사립유치원에 가기를 꺼려한다. 때문에 사설유치원의 경우, 그 교사들은 정규적인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범졸업생이 아닌, 직업학교의 졸업생이 주종을 이룬다. 2010년의 통계에 의하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유치원교사 3192명 중, 유아사범전업 출신의 교사는 1363명으로, 전체의 42.7%밖에 안 되며 이들 대부분이 공립유치원

에 취직하고 있다. 기타의 57.3%에 해당하는 교사는 비전문학교출신, 즉 직업학교출신이 대부분이며 주로 사립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다(李勇 외, 2011). 직업학교는 단순히 직업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기·속성교육으로서 직업학교의 교사진영·전업설치·교과과정·학생소질 등 제 방면의 조건으로 볼 때,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다양한 교육기관과 교육기간의 교사양성체제로는 유치원교사의 직업이 전문직으로서의 성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육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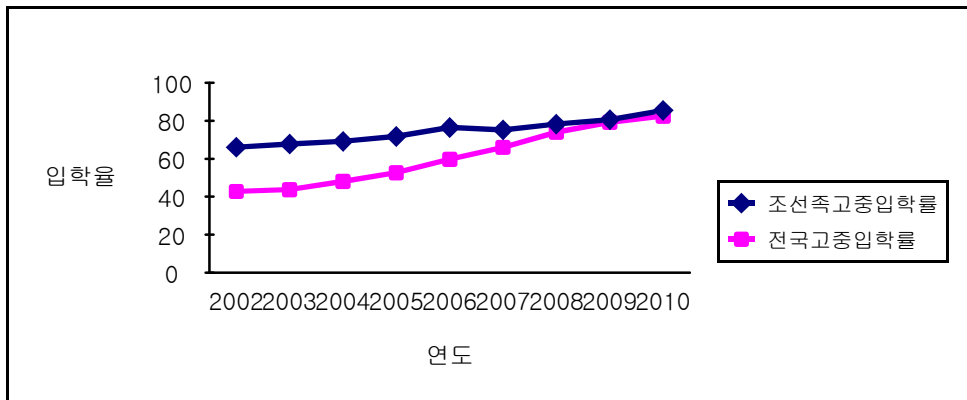
다음 현유 교사양성기관의 학생모집과 학제가 시대의 수요와 배치된다. 현유의 중등사범교육체제 및 3+2의 고등사범교육체제는 과거 중국에서의 의무교육단계외의 고급중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에서 실시된 일종 과도단계의 체제로서, 오늘날 중국의 고중교육과 대학교육의 기회가 크게 개방되고 학생들의 향후 진로문제에서도 선택의 기회가 상당히 많아지게 된 현시점에서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가고 있으며 따라서 그 일차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지망생부족이다. 대개의 경우, 학생차원에서나 학부모의 차원에서나 할 것 없이 고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상황에서 고중을 택하여 대학진학을 바라지언정 더는 초중을 갓 졸업한 17세 좌우의 학생들을 집을 떠나 사범학교(학원)로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제에 있어서 기존의 3년제 유아사범중등교육이 3+2체제의 전문대로 체제전환하면서 학제도 기존의 3년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는바, 5년이라는 학제가 전문성교육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겠으나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풍부하며 창의성이 활발한 17-22세의 연령기를 똑 같은 교육환경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하므로 쉽게 학생들의 권태감을 자아내게 된다. 때문에 현유의 초중생을 모집대상으로 하는 5년제의 유아사범교육체제는 학생들의 실제수요와 어긋나며 그 당연한 결과가 바로 현유의 사범학교가 많은 학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 유아사범전업 지망생의 문제점

연변대학사범분원 유아사범전업 지망생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방면, 즉 지망생의 양(量)적 부족과 소질저하를 들 수 있다. 특히 현 단계 사범분원의 유아사범교육의 지망생은 거의 고갈된 상태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에 이르렀다. 위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1981년부터 1994년까지의 10여년 사이에 사범분원의 유아사범교육은 상당히 활기를 띠었다. 1984년·1989년·1992년 3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평균 48명의 학

생을 모집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급격히 하강선을긋기 시작하여 2009년까지의 14년 사이에 겨우 4차례만 모집하였으며 특히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장장 4년 사이 유아사범전업의 학생모집은 아예 공백기를 기록하였다. 2009년 이후 연변대학사범분원에서는 해마다 당해의 학생모집계획에 30~40명 정도의 유아사범전업반을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생의 부족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백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족학생들이 유아사범교육을 기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중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의 고중교육의 보급과 대학교육의 대중화를 꼽을 수 있다. 20세기 9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중국은 고급중학교 입학률이 35%미만이었고 대학고 입학률은 10%미만이였다. 그러나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중국의 고급중학교 입학률과 대학입학률은 현저한 제고를 가져왔으며 특히 조선족의 고급중학교 보급정도는 중국의 평균 수준보다 더 높았다.



자료: 교육부, 「전국교육사업발전통계공보」 (2002-2010), 중국망 china.com.cn; 연변교육신식자원망 <http://www.ybedu.net/>의 통계자료에 의하여 작성

[그림 2] 고중단계 입학률 비교

[그림 2]에서 보다시피 조선족학생들의 고중입학률은 2002년의 66.1%로부터 2010년에는 85.5%로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대학입학비율도 2010년에는 45%로 증가(연변주교육국,2100)하였는바, 이는 동시기 중국고등학교 평균 입학률 26.5%보다 18.5% 높다(교육부,2011). 90년대 말까지 고중 및 대학교육기회의 제한으로 성수기를 누리던 유아사범교육은 고중교육의 보급과 더불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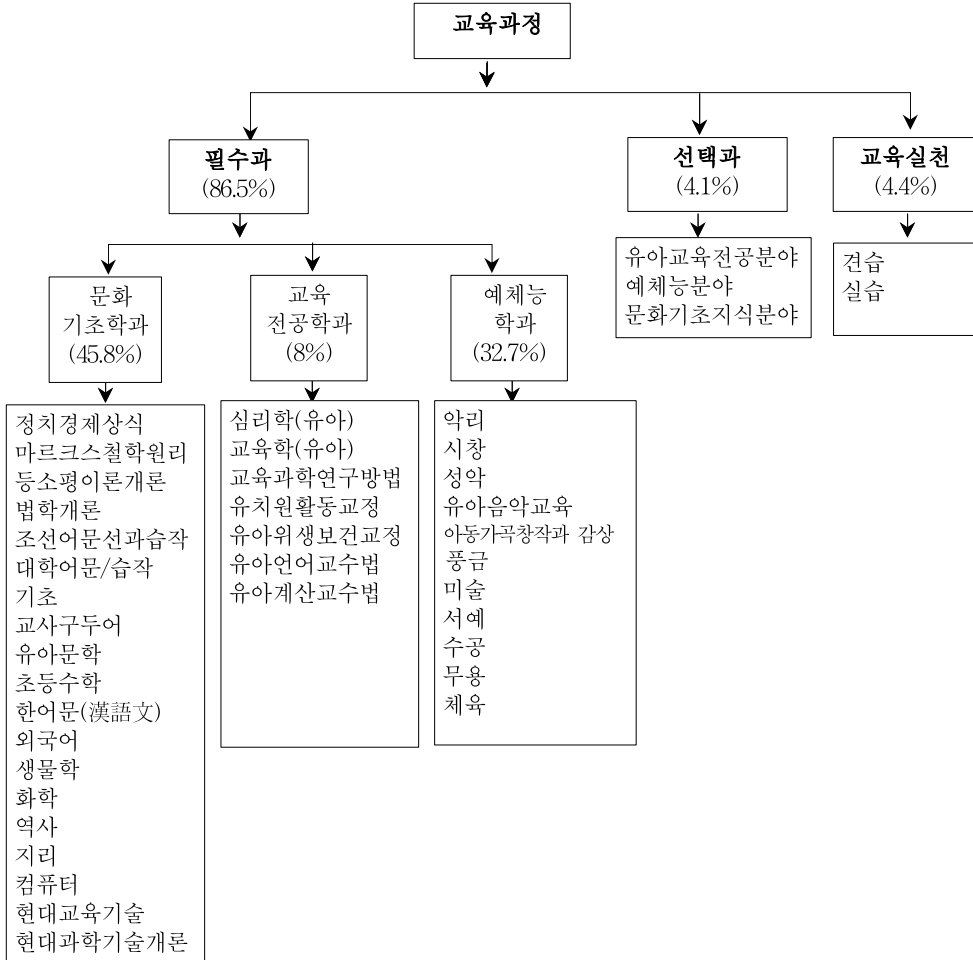
학생들이 유아사범교육을 기피하면서 유아사범교육은 지방생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질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하강세를 보였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 까지만 하여도 유아사범지방생은 면접시험과정과 필기시험과정을 거쳐 350-400점 좌우의 시험성적에 도달하여야 입학할 수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고급중학교에 입학할 가망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 사범학교를 지망하고 그나마 그 수효가 워낙 모집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점수선도 급락하고 있는바, 지금에 이르러서는 200점, 지어는 200점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점고급중학교³⁾의 점수선보다 350여점의 차이(연변1종의 경우 녹취선은 562점, 公辦民助의 경우 545점), 일반 고급중학교보다는 250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성적미달이 일차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직에 대한 적성이나 인성, 흥미 등 조건은 고려할 여지가 없게 되다보니 결과적으로 사범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조선족기초교육의 점진적인 위축과 침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교과과정의 문제점

교사의 질적 문제, 즉 교사의 사명감·전문성 및 자격양성에 한하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교사의 자질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교육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문제가 그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사범분원의 과정설치는 상급관계부문의 해당규정에 쫓아야 하기에 기타의 4년제 대학에 비하여 지방 실정에 따르는 자주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부동한 민족을 상대로 하고 민족별로 학급을 편성하기에 교과목 안배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교과목배정에서도 얼마간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림 3] 사범분원 유아사범전업의 과정 안에는 조선어문과 한어문 등 언어(문학)학과를 제외하고 타지역 유아사범과정과 별다른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3) 중국에서는 고급중학교단계의 학교를 중점고중과 일반고중으로 나눈다. 지역마다 학교시설과 교사역량이 좋은 학교들을 중점학교로 선정하여 초급중학교졸업생들 중에서 고중입시를 거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한다. 연변의 경우, 조선족중점고중으로는 연변제1고급중학이 있으며 이밖에 각 현에 중점고중이 하나씩 있으나 그 실력은 연변1중에 비하여 떨어진다. 公辦民助의 형식은 중점고중 녹취선에 미달한 학생들이 교액의 학비를 자부담하면서 중점고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그 점수에는 엄격한 요구가 있는바, 정상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약 10~20점 정도 부족한 학생들에 한한다.



자료:연변대학사범분원(2001). 유아교육전업과정계획(시행)

[그림 3] 연변대학 사범분원 유아사범 전업과정안

먼저 [그림 3]의 전반과정구조에서 문제시되는 점으로는 선택과목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전문학교 및 대학교육에 있어서 선택과목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주전공학과외에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주로 변천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다양한 진로에 대응케 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에 의하여 제공되는 과목인 만큼 학교마다 상급의 과정배정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 실정에 비추어 비교적 자유롭고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즉 학교의 자주성이 잘 체현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대개의 경우

선택과목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학문적 신장과 능력배양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메뉴로 제공되기에 학생들의 각별한 관심을 끈다. 그러나 위의 과정을 보면 선택과목은 대체로 유아교육전업지식분야·예체능분야·문화기초지식분야로만 분류되어 있고 구체 과목설정에서도 음악·무용·미술 등 기능과목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변대학사범분원의 성격상 조선족유치원교사양성의 중임을 떠메고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의 전승과 민족의식고양에 관계되는 학과목은 조선어문선/습작과 기초라는 두 개의 가장 기본적인 어문학과외에 기타의 과목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비단 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택과목 차지하는 비중도 겨우 전반교과과정의 4.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는 일찍 1995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반포한 「3년제 중등유아사범학교 교수방안(시행)」 중의 “필수과·선택과·교육실천·과외활동의 비중을 각각 65%,15%,10%, 10%로 배정하여야 한다”(국가교육위원회, 1995)는 규정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국의 북경사범대학(29.1%) 등 명문대의 학전전업의 선택과 비중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둘째, 전공학과목의 설정이 다양하지 못하다. 심리학과·교육학과 및 교수법 등 이론학과와 유아활동과정·유아위생보건교육 등 학과 외에 기타의 유아사범전업에서의 기본으로 되는 유아보육기초·영유아교육·영유아건강 및 안전·가족 및 사회복지 등에 관한 전문과목, 그리고 부동한 교육대상에 따른 특수아교육 등 과목들이 결핍되어 있어 유치원교사로서 어린이들의 보호·교육·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전공학과가 차지하는 비중도 겨우 전반 교과과정의 8%로서 전문직으로서의 유치원교사의 지식수양과 기능배양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셋째, 실천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 유치원교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에 단순한 교육차원뿐만 아니라 보육의 의무도 감당하여야 한다. 영유아기는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많은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로, 개체의 특성이 가장 활발하게 표현되는 시기이며 따라서 천편일률적인 학교에서 배운 단순한 지식과 기능으로 영유아들의 교과, 특히는 가변성이 상당히 큰 활동교과를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변대학사범분원 유아사범졸업생들에 대한 추적조사에 의하면, 대개의 경우 졸업한 후에 상당기간의 적응기가 필요하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별로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학교교육이 교육실제현장을 이탈하여 있으며 학생들의 실천기회가 부족함을 반증하는 예이기도 하다. 연변대학사범분원 유아사범교육전업의 과정안에 의하면, 장장 5년이라는 기간에 유아사범생들이 4학년 전학기까지 영유아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한 차례도 없으며 4학년 후학기에 가서야 겨우 한주간의 견습과 실습, 5학년 2학기에 6주간의 실습 등 도합 7주간의 견습·실습이 배정되어 있으며 전반 과정에서 교육실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4.4%밖에 안 된다. 그리고 교육실천(견습·실습)외의 기타의 사회실천은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학생들의 직접적인 사회실천을 토대로 한, 과학연구의 중요한 환절로 되어 있는 졸업논문단계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

Ⅲ. 정책제언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체가 교육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격을 소유한 창의적 인재양성은 교육을 떠날 수 없으며 따라서 교육이야말로 한 나라, 한 민족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핵심적 기초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국민의 기초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유치원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유아교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유치원교사의 양성문제도 전반사회의 관심과 주목이 필요 되는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 중국교육발전과 개혁흐름에서의 유아교육 및 유아사범교육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가. 중국의 향후 교육발전과 개혁에서의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1980년대부터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공공기관, 대학교, 기업 및 기타 부문에 소속되었던 공익기관으로서의 유치원이 시장체제로 돌입되는 바람에 유아교육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유치원단계의 교육은 공립, 사립 등의 설립주체의 다양화와 유치원의 난립에 따라 학비, 교육과정, 교사대오 등 제방면에서 장기간 혼잡한 국면에 빠져들어 결과적으로 ‘유치원입학이 어렵고 비용이 비싸다(入園難, 入園貴)’ 등의 문제로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중국은 나라와 정부의 측면에서 유아교육에 대하여 전에 없는 주목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향후 10년간 중국교육개혁과 발전의 지침

으로 일컬어지는 「국가 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계획요강(國家中長期教育改革和發展規劃綱要) 2010~2020」(이하 요강으로 칭함)에서 이례적으로 유치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요강」은 학전교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면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첫째,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요강」에서는 “학전교육의 발전을 성진(城鎮), 신농촌건설의 계획에 넣어야 한다. 정부에서 주도하고 사회가 참여하며 공립, 민립이 병진하는 유치원설립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공립유치원을 발전시키고 사립유치원을 부축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성분분할기제(成本分擔機制)를 실행하여 가정경제가 어려운 유아들의 입학에 재정보조를 주어야 한다. 유치원사업제도와 관리방법을 진일보 합리화하며 학전교육의 운영표준과 수급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유치원설립과 그에 대한 협수제도를 건립하여야 한다. 학전교육관리를 가장하고 유치원운영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둘째, 향후 유치원교육의 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요강」에서는 향후 10년간 유치원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2020년에 이르러 학전 1년교육을 전면 보급하고 학전 2년교육을 기본상에서 보급하며 여건이 허락되는 지역에서는 학전 3년교육을 보급하며 0-3세 영유아교육을 중시하여야 한다”라고 제정하였다.

셋째, 유치원교사대오에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요강」은 유치원교사대오에 대하여 “법에 따라 유아교사의 지위와 대우를 체현하여야 하며 유아교사대오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행정부문은 학전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지도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부문들은 각자의 직책을 이행하고 사회 각 방면의 힘을 동원하여 학전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농촌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요강」에서는 “농촌학전교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학전교육의 보급정도를 제고하기에 힘써야 하며 홀로 남은 아동(留守兒童)⁴⁾의 유치원입학을 담보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형식으로 농촌학전교육자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탁아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충하여야 한다. 소학교에 학전반을 부설하며 중소학교통합과정에서 남아도는 학교건물과 교사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 빈곤지역을 지지하여 학전교육을 발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4) 留守아동이란, 농민공의 대이동 및 국외노무송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모와 떨어져 농촌의 원 호적지에 남아 있는 농민공의 자녀들을 말한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1.5억 농촌 노동력이 이직 하고 있다. 그 중 60%가 자녀를 그대로 집에 남겨두고 왔는데, 그 숫자가 2000만 명에 달한다. 조선족의 경우 특히 유수(留守)아동현상이 심각한바, 농촌은 물론, 도시 유치원 및 학교들에서도 유수(留守)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50~70%에 달한다.

상기의 규정에서 볼 때 향후 10년간 중국의 유아교육은 전에 없는 발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유아교육의 질적 담보는 대량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대오를 필요로 하고 있기에 유아사범교육의 개혁과 발전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나. 중국의 교육서비스시장개방에서의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사범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조기교육의 열풍, 전반유아교육시스템의 미비와 유아교육서비스시장의 혼잡,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일련의 권장조치 등은 유아교육이 고등교육에 이어 향후의 중국교육서비스시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교육의 기초단계라는 유아교육의 특정상, 유아교육은 결코 무방비상태로 시장에 밀어버릴 수 없는 특수성과 민감성을 띠는 분야이기도 하다. 교육서비스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국의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여야 하며 유아교육의 일선에 양질의 교사대오를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유치원교사 및 유아교육시설에 대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향상하여야 한다.

첫째,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날 유아사범전업의 지망생이 급감하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통일적인 요구가 없기에 비사범류출신의 유치원교사와 차별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전문성도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소학교의 경우, 그 전부가 의무교육단계의 공립학교로, 자격기준·임용평가·경제적 대우 등 면에서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극히 일부분의 공립유치원외에 사설유치원에서는 교사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때문에 사설유치원의 경우, 자격기준의 구애를 받지 않고 흔히 경제적으로 지출이 적고 또한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업중학교의 졸업생, 지어는 아무런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고중·초중졸업생을 교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족기초교육의 연장선차원에서 유치원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치원교사대오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여 교사자격제도·직무제도·협수제도·평가제도 등 일련의 상별조치와 규제를 완벽화하여 조건미달의 사람들이 교직에 진출하는 경향을 엄격히 단속하여 교사대오의 전문성을 제고,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

국교사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유치원교사들이 중소학교 교사들과 동등한 지위와 대우를 받도록 담보하여야 하며 유치원교사들의 연수·직함평정·로임·사회보험 등 방면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유치원교사직이 전문직이면서도 일정한 사회적 처우가 안받침 되어 있는 안정된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전반 유치원교육에 대한 관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인간발달주기에서 영유아가 차지하는 중요성 및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가·출산율급감·소가구화·편부모가정의 증대 등 조선족 가족구조의 변화는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책임수행 및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현유의 사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영리차원에서 운영되기에 유치원의 운영과 관리·교사의 채용·유아교육의 실효성 등 방면에서 일련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전반 유치원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비롯한 대부분의 처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의 가장 원초적인 단계인 유치원교육의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교육입법(立法)·교육관리기구·유아교육재정투입·자격증제도 등 다방면으로 공립유치원의 증설 및 확충을 꾀하는 한편 영리성격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각종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여 비전문출신 교사들의 유입을 제한함으로써 양질의 지망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3. 현유의 유치원교사양성체제를 개혁하여 교사교육이 시대발전의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첫째, 유아교사양성체제와 기관을 정비하여 유치원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교사양성은 교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등을 장기적인 직전교육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최초의 교사자격 취득 요건으로 실시하는 준비교육을 말한다. 교원양성교육은 전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한 국가의 교육체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다. 특히 오늘날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교육의 원초적인 단계로 되어 있는 유아교육, 및 유치원교사의 작용과 책무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유아교육을 강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유치원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치원교사는 단순히 유아를 돌보는 보모가 아니라 교사라는 점에서, 현유의 중등 및 전문학교(專科)학력중심의 양성체제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없다. 특히 현유의 직업중학교를 비롯한 단순한 직업교육으로는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아기 교육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현유의 사범교육체제를 개혁하여 유치원교사의 학력차원을 제고하여야 한다.

기존의 유아사범교육제도는 과거 중국에서의 대학교육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유치원교사양성이 사회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던 시기의 체제로, 오늘날에 와서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가고 있으며 따라서 일차적인 문제로 지망생부족, 지어는 지망생고갈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유의 초중졸업생을 상대로 하는 5+3대학전문학교 유아사범교육제도를 고졸졸업생을 상대로 하는 4년제 전일제 본과학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교육에 대한 조선족의 열망과 요구는 상대적으로 타민족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초기 대학교육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문학교 혹은 전문대도 일정한 사회적 수요가 있었지만 오늘날 대학교육의 기회가 극히 개방되고 자율화된 상태에서 중등전문학교 혹은 전문대는 많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또한 고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증대된 상황에서 초중졸업생을 상대로 한 양질의 사범지망생을 유치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지금의 전문대 단계의 교육을 본과학력의 대학으로 승격하여 연변대학 사범학원에 학전교육학과 및 기타의 유아관련학과를 설치함으로써 학생개체발전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전문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4.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과과정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사의 자질에 영향 주는 변수는 무수히 많지만 아무래도 그중에서 교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는 특색이 있어야 하고 학생은 특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중국의 사범교육이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주요한 책략이다.

소수민족지구에서 유치원교사대오의 양성을 맡고 있는 연변대사범분원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특색부각이라는 사명을 밀어버릴 수 없다. 이 같은 사명을 염두에 두고 사범교육의 보편성과 지역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미래에 향한 비전과 현실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기초과목·전공과목·교직과목·선택과목·실천과목 등을 과학적으로 균형 있게 배정함으로써 낮은 소질로 입학한 유아사범생들의 실력제고(低進高出)의 경로를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연변대사범분원의 경우 기존의 3년제 중등사범학교에서 5년제 고등사범전문학교로 승격된 상황에서 선택과정영역에 대한 탐구와 실천을 다그쳐 학생들의 취미, 적성 개성에 맞는 다양한 학과들을 설치함으로써 선택과가 학교의 특색을 부각하고 학생들의 지식과 기능신장을 촉진하는 공간

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전공학과(교직학과)의 비중과 교과내용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유아사범교육전업에서 8%밖에 안 되는 전공학과로는 날로 증대되는 영유아교육의 수요 및 유치원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유치원교사는 어디까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에 양성단계의 학과목배정에서 영유아의 보육·보건 등의 신체적 성장과 두뇌의 발달을 염두에 둔 지적신장,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교과목배정도 영유아의 신체적 발달과 교육을 둘러싸고 배정되어야 하며 또한 부모·지역사회와의 관계선상에서 가족과 사회·지역사회개론·사회복지·특수교육 등 방면의 교과도 설정하여(조복희, 2002) 유아사범교육전업의 양성목표가 단순한 유치원교사양성차원을 넘어 관리일군·보육보건·문화시설 등 방면의 사회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폭을 넓혀가야 한다.

셋째, 실천과목의 비중을 대폭 증가하여야 한다. 유치원교사직업은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특수한 직업이다. 따라서 중소학교의 교사에 비해 유치원교사는 취직 전에 벌써 유아교사로서의 인격, 자질 등을 구비할 것과 일정한 실천경험누적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지식기능전수와 더불어 교학견습·실습, 등 실천과정을 강화하여 “능력훈련을 주선으로 하는” 과정구조를 확립하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양한 견습과 실습 및 기타의 사회실천 활동을 조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조작과 실천가운데서 지식과 기능을 쌓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창조하여 주어야 한다. 유아사범전업에서의 실천성이 부각되면서 일부 학자들은 이른바 ‘전면실천(全實踐)’의 과정을 강조하기도 하는데(呂萍, 2004)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의 전반 과정에 실천활동을 관통시킴으로써 시대발전의 수요 및 영유아교육의 실제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박금해(2008). 글로벌시대 중국조선족교육의 실태와 향후과제. **디아스포라연구**, 2(2).
- 조복희(2002). 유아기아동의 보육교사 양성 교육체제. ‘21세기를 열어 갈 아동교육’ 학술회의 논문집.
- 제경숙(2003). 유치원교사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교사양성의 방향. **교육이론과 실천**, 13(2)
- 政務院(1951). 關於改革學制的決定.

- 國家教育委員會(1995). 三年制中等幼兒師範學校教學方案(試行).中國學前教育研究會編.中華人民共和國 幼兒教育重要文獻匯編. 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9. p.402.
- 陸炳炎(2000). 一体化-師範教育改革的思考与實踐.華東師範大學出版社.
- 教育部(2001). 幼兒園教育指導綱要.
- 教育部(2004). 關於幼兒教育改革和發展的指導意見.
- 延邊大學師範分院(2001). 幼兒教育專業課程計劃(試行).
- 邢利姪,張燕(2007). 幼儿教育管理理論与實踐.北京師範大學出版社.
- 教育部(2011). 2010年全國教育事業發展統計公報. 中國教育報 2011.7.8.
- 楚江亭主編(2010). 國家中長期教育改革和發展規劃綱要(2010-2020年) -中小學校長讀本.北京師範大學出版社.
- 延邊州教育局(2011). 十一五期間我州朝鮮族教育改革和發展取得巨大成就.
- 延邊朝鮮族自治州人民政府文件(2011). 延邊朝鮮族自治州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个五年規劃綱要. 5號.
- 呂萍(2004). 關於學前教育師資培養的實踐與思考. 學前教育研究, 5期, p.52.
- 楊莉君,康丹(2006). 關於高師學前教育專業本科生培養中几个問題的思考. 教師教育研究. 5期.
- 嚴冷(2006). 美國高校幼師教育簡述. 學前教育. 9期.
- 李勇 외(2011). 關於發展延邊州學前教育問題的提案. 吉林省人民政府.
<http://www.jl.gov.cn/>

- 논문접수 2011년 9월 23일 / 수정본 접수 11월 30일 / 게재 승인 12월 15일
- 교신저자: 박금해,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이메일 paojinhai@hanmail.net

Abstract

Problems and Improvement Project: The Training System of Korean Chinese Kindergartens

Piao Jin-hai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of Korean Chinese is important and appropriate not only for the personal growth and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but also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community and national identity of the minority nationalities within the borders of China.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situation of the prep kindergartens who take on the important tasks of improving the qualitative level of Korean Chinese early childhood education. Since the early 1980s, Infant Teachers Major in Yanbian First Normal School (present the Normal Branch College of Yanbian University) has been training a great deal of kindergartens and making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cause of infant normal education. However, with the increasing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strength, the needs of mass education has been expanding, secondary education has become universal, college education has popularized, which have caused the crises fo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uch as the problem of '3+2' teacher education system, the exhaustion of the students source, the improper of teaching proces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bove-situation, this study urges policy scenarios to change ideas abou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uplift the degree of its specialization and reform its system and its teaching process.

Key words: korean chinese childhood teachers education system, korean chinese kindergartens teachers

「육아정책연구」 규정

제정 2007. 1. 12.

개정 2009. 1. 19.

2011. 4.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육아정책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학술지 발간목적) 학술지 발간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
2. 육아정책 관련 지식과 정보 교류
3. 한국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지적 기반 확보

제3조(발간횟수 및 발간일) 발간 횟수는 연간 2회로 하고 발간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게재논문 편수) 1회 게재 논문 편수는 최종 심사결과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 10편 내외로 한다.

제5조(논문 공모주제) 논문 공모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정책 개발, 분석 및 평가
2. 육아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3. 기타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제2장 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구성)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소 출판·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 편집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소 출판·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7조(편집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편집위원의 위촉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은 연구소 출판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자격요건에 있어 전공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관련기관 근무자로 한다.